

## 해상 펜션서 낚시·청정갯벌서 바지락 체험 ‘힐링의 섬’



지난달 말 하늘에서 내려다 본 소경도 모습. 섬 앞엔 여러개의 무인도가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다. 이번 휴가 휴식도 즐기고 가족과 함께 추억을 쌓을 곳은 없을까. 육지와 떨어진 섬은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휴식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여수엔 힐링 여행지로 꼽히는 아름다운 섬이 즐비하다.

이 중에서도 소경도(小鏡島)는 힐링 여행지로 단연 으뜸이다. 여수시 월호동에 딸린 이 섬은 면적 0.42㎢, 해안선 길이는 3.5km다. 세대 수는 64가구로, 100여 명이 거주하는 작은 섬이다.

주변의 야도·가장도·소경도·송도 등 부속 도서와 함께 여수항의 서수도를 가로막는 천연 방파제 역할을 하는데, 그야말로 경치는 비경의 연속이다. 광주에서 승용차로 1시간20분 타고 가면 여수 소경도선착장에 도착하는데, 이곳에서 하루에 10회 왕복운행하는 소경도행 철부선을 타면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섬에 도착하면 진한 바다내음과 함께 신비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갖춘 섬이 한 눈에 내려다 보인다.

◇치유의 섬 ‘소경도’=섬 전체가 고래처럼 생겼다고 해 소경도라고 부르며 사시

### 여수시 월호동에 딸린 100여명 거주 담벼락에 아이들 뛰노는 모습 그림벽화 돛형 펜션 샤워실·에어컨 시설 등 갖춰 주변 무인도 기암괴석 해안선 따라 병풍 갯바위 낚시 포인트 많아 낚시꾼 몰려

사철 푸른 소나무림을 품고 있어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다. 선착장에서 내린 뒤 마을 돌담길을 따라 10분 가량 걷다보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야산의 정상에 올라 설 수 있다. 정상엔 100년 이상 된 괴리 모양의 노송 서너 그루가 관광객을 맞이하는데, 이를 바라보자면 신선이 따로 없다. 사방이 탁 트인 정상에서 북쪽을 바라보면 여수시내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인다.

너비 1m의 마을 고부랑길을 따라 정상을 내려오면 아늑한 집들이 웅기웅기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담벼락엔 철부지 어린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 등이 담긴 벽화가 그려져 있다. 지붕은 집주인의 개

성에 맞춰 주황색·파란색·연두색·검정색 등의 색깔이 달리 칠해져 있는데, 웅기웅기 모여 있는 모습이 마치 동화 속 마을을 연상케 해 정겨움마저 준다. 섬 둘레에 조성된 길을 따라 걷다보면 푸른 바다와 각종 나무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 멋진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쪽빛 남해 수평선을 따라지는 일출과 일몰은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장관이다.

◇최고의 해상 펜션=섬서 35도를 훨씬 웃도는 가마솥 더위를 피하고 싶다면 소경도 해상 펜션을 이용해보자. 이 마을의 해상 펜션은 소경도 선착장에서 직선거리로 30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이 펜션은 신축된 것으로, 최신 트렌드를 반영, 각 객실 내 바비큐 시설과 제트스파, 낚시터 등을 갖추고 있다. 또 푸른 바다가 멋스러운 조화를 이루면서 여행객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펜션 내·외부 전경으로는 탁 트인 바다가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주는데, 전 객실 오션뷰가 있어 나만의 휴식을 즐길 수도 있다.

드넓은 바다 위에서 낚시를 하며 여가를 즐길 수도 있다. 유료 낚시터를 갖춘 9평 규모의 돛형 펜션 4동은 샤워실·냉장고·에어컨은 물론 상수도 시설까지 갖췄다. 펜션 아래 바다 속에는 물고기 서식처인 돌어초가 투하돼 낚시를 즐길 수 있다.

◇갯바위 낚시 포인트가 많은 소경도=여수에서 소경도는 매우 작은 섬 중 하나다. 섬에서 소형 어선을 타고 1~5분 내에 작은 무인도가 많다. 일부 무인도는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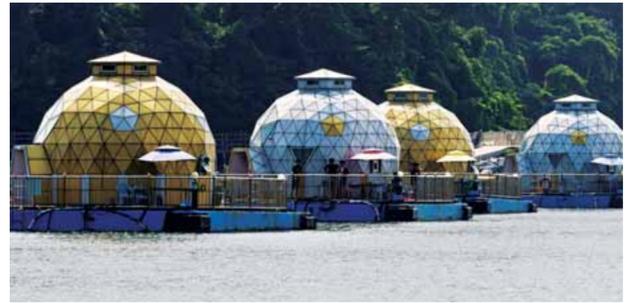
암괴석이 해안선을 따라 병풍처럼 둘러쳐 있고 소나무 숲도 울창해 발 길 닿는 곳마다 멋진 경치에 마음을 빼앗긴다.

소경도는 양질의 갯벌과 청정해역을 자랑한다. 낚시꾼들이 많이 찾는 이유다. 소경도에는 풍부한 어자원으로 우럭·놀래미 등 선상 낚시는 물론 유령 갯바위 낚시 포인트들이 많아 사시사철 낚시꾼들이 찾는다. 여수에서 낚시를 즐기고 싶다면 소경도로 가는 것을 추천한다.

◇‘바지락’ 등 인기 최고=청정해역인 이 섬은 바지락과 톳 등이 매우 유명하다. 이곳에서 채취되는 바지락은 종패를 뿌리지 않는 자연산이다. 모래가 섞인 소경도 갯벌은 미세알 성분이 풍부한 것이 특징. 소경도의 명물로 꼽히는 바지락은 타 지역에 비해 알이 굵고, 속이 짙 차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다. 식감이 좋기에 이 섬을 찾는 이들에게 인기가 좋다. 과거엔 채취된 바지락 전량이 일본으로 수출됐다. 이달과 내달엔 청각이 마을 앞에서 생산되는데, 청각 특유의 향이 고스란히 살아 있어 그 어느 지역의 청각보다 맛이 좋다. 또 매년 5월부터 11월까지 톳이 불티나듯 팔린다. 이곳의 톳은 자연산으로, 다른 지역에서 종패로 사용될 정도로 신선했다. 이들 해조류는 맛은 물론 신선도도 좋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매우 좋다. 구매문의는 김유근 어촌계장(010-3612-0579)에게 하면 된다.

◇교통편=소경도로 가는 배편은 여수 소경도선착장을 이용하면 된다. 평일 기준 소경도행 철부선이 왕복 10회 운항한다. 출항시간은 조석간만의 차로 유동적이다. 소요시간은 5분~10분. 뱃삿도 비수기와 성수기 때가 다른데, 성수기에는 일반인 기준 왕복 3000원이다. 소경도에는 해상펜션(6객실)과 옥상펜션(7객실) 등 숙박업소가 여러 곳에 달한다. 객실 수는 모두 6개. 성수기 기준 1박 5일 기준 13만~15만원.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소경도 선착장 인근에 설치된 해상 펜션.



청정해역인 소경도 갯벌에 노니는 게.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옥상펜션.

### 찾아오는 길

여수 소경마을 (여수시 경호동 소경도2길 27)

#### ▶ 승용차

호남고속도로→신대교차로→여수,목포)방면→여수IC)시정)방면→석창사거리)시정,여수세관)방면→여항단지로→소경도대합실→승선 후 10분 소요

#### ▶ 고속버스

센트럴시티터미널→여수종합버스터미널→여수시내버스 61, 777, 666, 52, 31번 ‘월호동주민센터건너 정류장’ 하차(35~40분 소요)→소경도대합실(도보3분)→승선 후 10분 소요

#### ▶ 열차

1.서울역, 용산역→여수엑스포역→여수시내버스 2번 ‘월호동주민센터건너 정류장’ 하차(35분 소요)→소경도대합실(도보3분)→승선 후 10분 소요  
2.서울역, 용산역→여천역→여수시내버스 61번 ‘신월금호아파트 정류장’ 하차(40분 소요)→소경도대합실(도보3분)→승선 후 10분 소요

## “톳·바지락 등 해조류 판로 개척 ... 6차산업 활성화”

### 김유근 소경도어촌계장

“어촌이 고령화되면서 잡는 어업의 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6차 산업화인데, 그 방향을 따라 가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여수시 소경도 마을 앞 포구 정자에서 만난 김유근(64) 소경도어촌

계장은 향후 마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입을 열었다.

어촌의 고령화가 심화할수록 노동강도가 센 어로어업만 고집해서 승산이 없다는 것이다. 마을에서 생산되는 톳·바지락·청각 등 각종 해조류를 소량 생산하더라도 이를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마을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해조류를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마을을 오가는 도매상들에게 해조류를 판매해도 제값을 못 받는 만큼 옥상·해상펜션 손님과 일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 판매시스템 구축에 무진 애를 쓰고 있다.

김 어촌계장은 “성수기 땀 옥상·해상

펜션 손님이 많은데, 비성수기 땀 찾는 이들이 많지 않다”면서 “마을에 사방이 트인 전망 좋은 야산이 있다. 이곳과 연계되는 마을 길을 조성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바지락캐기 체험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도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소경도의 경우 관광객이 바지락캐기와 낚시 등 각종 어업활동을 체험할 수 있고 아나고·놀래미·감성돔 등 낚음안에선 최고의 다양한 어종이 나오기 때문이다.

김 어촌계장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생물종을 보유한 특성을 살려 바다 체험 등 다른 곳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바다에서 이뤄지는 사업의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초기 투자금이 너무 크다는 것”이라며 “마을에서 각종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 지자체와 정부에서 지원을 늘려준다면 어촌계가 지역 어업인들을 보호하고 어촌경제를 활성화하는 한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